포천반월아트홀에서 작품 40여점 전시

포천사진연구회 제9회 정기회원전 개최

포천사진연구회(회장 박병선)는 10월10일 오후5시 반월아트홀 1층 전시장에서 제9회 포천사진연구회 정기회원전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서장원 포천시장, 이중효 포천시의회 의장과 의원, 민주평통포천시협의회 윤장일 회장과 사진연구회 회원 50여명이 참석했다.

서장원 포천시장은 "한 장의 사진이 수천, 수만의 말보다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며 "단순히 과거의 기록이 아니라 미래를 향한 메시지를 전하는 예술로서 지역문화를 다양하게 발전시키는 원동력"이라고 말했다.

이중효 포천시의회 의장은 "회원 상호간에 화합과 우의를 다지며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병선 포천사진연구회장은"이번 전시회가 사진예술을 사랑하는 동호인들뿐만 아니라 포천의 시민들과 함께 향유하고 지역의 많은 예술인들이 동참하는 문화행사가 되기를 바란다"며 "문화예술 발전에 일조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기회원전은 15일까지 개최하며 포천시와 경기문화재단, 포천시의회, 포천문화원, 예총 포천시지부가 후원하고 있다.

포천사진연구회는 10월10일 오후5시 반월아트홀 1층 전시장에서 제9회 포천사진연구회 정기회원전을 개최했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포천솟대마당 國泰民安 기원

포천시문화예술봉사단, 고인돌 공원에서 개최

포천시문화예술봉사단(단장 이희용)은 10월3일 오후3시부터 포천시 가산면 고인돌 공원에서 포천솟대마당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포천시민과 예술인이 함께 소원을 빌고 하늘에 그 마음을 옮기고자 솟대를 세우는 지역의 작은 축제로 나라를 걱정하고 시민의 행복과 발전을 기원하며 남북화합과 국태민안을 기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는 KBS 조철남 코메디언의 사회로 고인돌을 배경으로 기원제와 무용, 경기민요, 마당극, 풍물놀이, 풀피리, 사물놀이 공연 무대를 마련했으며 풀피리 배우기, 빈대떡 시식코너도 마련하는 등 시민축제 행사로 개최됐다.

이희용 포천시문화예술봉사단장은"고인돌을 세상사람들에게 알리는 계기를 마련함은 물론 지난 1년 동안 문화예술로 각종 봉사활동을 펼쳐온 단체들이 한마음으로 마련한 이번 축제가 포천시 발전의 동력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히고 "이 행사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포천시문화예술봉사단은 10월3일 오후3시부터 포천시 가산면 고인돌 공원에서 포천솟대마당 행사를 개최했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韓國의 선비정신 · 117

광복을 도모한 지 십년에 집도 목숨도 모두 잊었노라

리효종
한국한시협회 포천지회장

동학혁명이 일어났을 때 김창숙은 어린 나이로 서당에 다니고 있었다. 하루는 친구들과 글을 읽고 있는데 아버지가 학생들을 불러 놓고 말했다.

"너희는 부모님이 주시는 밥을 먹고 옷을 입으며 앉아서 한가로이 옛 글만 읽고 있다.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밖에서 모내기를 하는 농부들의 노고가 얼마나 심한지 아느냐?"

그러면서 아버지는 밖에 나가 농부들의 일손을 도우라고 명했다. 점심때가 되자 농부들과 함께 불러놓고 아버지가 말했다.

"오늘은 너희도 다 농부들이다. 누가 천하고 귀한가를 따질 필요 없다." 그러고는 밥 짓는 여자아이를 시켜 점심을 주었는데, 늙은 종들에게 먼저 주고 학생들은 맨 나중에 주게 하였다. 밥을 먹고 나자 아버지는 다시 말했다.

"지금 세상이 크게 변해가고 있는데 너희가 '주역'을 읽고도 변화의 이치를 모르면 되겠느냐? 앞으로 너희는 내 말을 명심하여 올바로 살아갈 길을 강구하도록 하라." 이후 김창숙은 공부에 열중했다.

1908년 대한협회가 창설되자 그는 총무로 참여하여 유림들을 모으고, 국채보상운동이 벌어지자 성주군 대표로 참여하였다. 그런데 일진회 대표 김상범이 전국에서 모은 돈을 전부 중앙에 집결시킨 다음 각 정당의 감독을 통해 처리할 것을 주장했다. 그러자 김창숙이 앞으로 나서며 소리쳤다.

"이 소중한 돈을 일진회 같은 매국노들에게 맡길 수는 없소. 국채를 상환하지 못할 바에는 차라리 교육기관에 투자하여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옳소. 나는 돌아가 우리 군에서 모금한 전액을 사립학교 기금으로 충당하겠소." 그러고 나서 탈퇴성명서를 제출해버렸다. 1910년 나라가 망하자 그는 통곡하면서 울부짖었다.

"나라가 망했는데 선비로서 이 세상을 사는 것은 커다란 치욕일 뿐이다." 이후 그는 매일 술에 취해 방랑하다가 중국으로 건너갔다. 그는 중국에서 독립운동을 전개하다가 일본군에 체포되어 일본으로 압송된 후 다시 부산으로 이송되었다. 부산을 떠나 대구에 도착하자 일본 형사들은 그에게 고문을 가하기 시작했다. 김창숙이 웃으며 말했다.

"너희가 고문을 통해 나에게서 정보를 얻어내려 하느냐? 내가 비록 고문으로 죽는 한이 있더라도 결코 입을 열지 않을 것이다." 그런 다음 김창숙은 붓을 달라 하여 시 한 수를 써주었다.

광복을 도모한 지 십 년에
집도 목숨도 모두 잊었노라
돌무더기처럼 스러진 삶이 백일하에 드러났는데
새삼 야단스럽게 고문한들 무엇하리요.

일본인 고등계 형사는 한시(漢詩)를 이해하지 못했으므로 한국인에게 그것을 풀이하게 하였다. 그러더니 문득 김창숙에게 머리를 조아리며 말했다.

"저는 비록 일본인이지만 선생의 큰 뜻에 고개를 숙이지 않을 수 없소. 선생은 이미 목숨과 가정을 돌보지 않기로 했으니 실로 고문을 해서 선생의 뜻을 빼앗을 수 없겠습니다. 하지만 조사를 하지면 부득이 고문을 면하기 힘들 것입니다." 이후 그 형사는 김창숙에게 선생이라고 부르며 고문을 완화시켜 주었다. 감옥에 있으면서 예심이 끝나자 일본인 판사가 김창숙을 보고 말했다.

"내가 독립운동가들을 많이 다루었지만 선생처럼 굳세고 의연한 사람을 보지 못했소. 개인적으로 만나 조용히 시국에 대해 논할 수 있겠소?" 그러자 김창숙이 말했다. "이미 재판에서 모두 진술했는데 다시 이야기할 게 뭐가 있겠소." 재심이 시작되자 가족들이 면회를 와 변호사 선임을 의논하였다. 그러나 그는 변호사 선임을 거절하였다. 그러자 변호사 김완섭이 세 번이나 찾아와 면회를 요청하였다. 부득이 그를 만나자 변호사가 물었다.

"변호사를 거절하는 이유를 듣고 싶습니다." "내가 변호사를 거절하는 것은 일본의 법률을 부인하기 때문이오. 일본 법률을 부인하면서 일본 법률을 배운 변호사에게 변호를 부탁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오. 나는 단지 포로일 뿐이오. 전쟁에서 불잡힌 포로가 구차하게 목숨을 구걸하는 것은 치욕이오. 남의 손에 의지하여 목숨을 구하지는 않겠소. 나는 이미 생사를 염두에 두지 않고 있으니 걱정할 필요는 없소. 내 말을 다 했으니 어서 돌아가시오."

결국 그는 14년형을 언도 받았다. 감옥에 있을 때 교도관이 나타나면 담당 간수는 물론 죄수들까지 모두 일어나 인사를 해야 했다. 그러나 김창숙은 꿈쩍도 하지 않고 태연히 앉아 있었다. 이일로 교도관이 간수를 꾸짖었다. 그러자 간수는 김창숙에게 다가와 부탁하듯 말했다.

"죄수가 교도관에게 인사하는 것은 예의입니다. 앞으로는 다른 사람들처럼 해주십시오." 그러자 김창숙이 웃으면서 말했다. "내가 감옥에 들어온 지 7년이 지났지만 교도관을 보고 머리 한번 숙여본 일이 없다. 나는 위협한다고 해서 굽힐 사람이 아니니 그리 알라."

하루는 교도관이 간수를 보내 육당 최남선이 쓴 글을 가져와 감상문을 써내도록 하였다. 그러자 김창숙은 이를 거절하며 말했다.

"쓰고 싶지 않다. 그 글에 대한 감상은 이미 여기 있는 사람들에게 다 말했다. 내 감상을 알고 싶으면 사람들을 불러 물어보라."

그래도 간수가 몇 차례나 찾아와 부탁하므로 김창숙은 양근환이 친일파 민원식을 찔러 죽인 사실을 적은 한시를 지어주었다. 간수가 깜짝 놀라 물었다.

"이런 글을 쓰시면 어떻게 석방이 되겠습니까? 새로 순한 말로 써 주십시오. 무엇 때문에 화를 자초하십니까?" "나를 염려해주는 것은 고마우나 나는 화를 겁내는 사람이 아니다."

간수는 몇 번이나 간청하였지만 김창숙은 뜻을 굽히지 않았다. 결국 간수는 그 시를 수첩에 베껴 가져갔다.

해방 후 그가 이승만을 만났을 때였다. 이승만이 그에게 말했다. "지금 나라를 다시 세우는 데 필요한 것은 재정이오. 당신은 자금을 동원할 수 있겠습니까?"

그때 김창숙은 이렇게 말했다. "나는 본래 가난한 사람이라 그럴 능력이 없소."

"유력한 사람들을 모을 수는 있지 않겠소?"

"지금 시급한 것은 민족을 단결시키는 일이지 돈을 모으는 것이 아닙니다."

김창숙(金昌淑)
1879년(고종 16) ~ 1962년.

본관은 의성(義城)이며 자는 문좌(文佐). 호는 심산(心山)이다. 1905년 을사조약이 체결되자 상경하여 '청참오적소(請斬五賊疎)'를 올리고 이완용 등 오적을 성토하였다. 3·1운동이 일어나자 전국의 유림을 규합해 진정서를 작성하고 중국 상해로 망명한 뒤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만국평화회의에 우편으로 제출하였다.

1924년 만주와 몽고 접경지대에 황무지를 개간해 독립운동기지 건설계획을 추진하였으나 자금조달문제로 국내에 잠입하여 모금운동을 전개하다가 탄로나 다시 출국하였다. 이후 신채호 등과 〈천고(天鼓)〉를 발행하고, 박은식(朴殷植) 등과 〈사민일보(四民日報)〉도 발간하였다. 또 서로군정서(西路軍政署)를 조직해 군사선전위원장으로 활약했으며, 1925년 임시정부 의정원 부의장에 선출되었다.

1927년 상해에서 일본 영사관원에게 붙잡혀 본국으로 압송되어 14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고문에 의한 두 다리 마비로 형 집행정지를 받아 출옥하였다. 출옥 뒤에도 창씨개명에 반대하는 등 항일 자세를 조금도 굽히지 않았다.

광복이후 유교이념에 입각한 성균관대학을 설립하고, 김구와 함께 단독정부 수립에 반대하였으며, 이승만 정권 때는 독재와 부패를 막기 위한 투쟁을 벌였다.

뮤지컬 이야기 #65

1950년대 뮤지컬 개요 – 장편 뮤지컬 애니메이션

어린이들을 위한 만화나 동화를 보면 인간의 현실적인 문제들이 의인화되어 재미있게 묘사된 작품들이 있다.

1940년대에 만들어진 디즈니 애니메이션 속에서도 냉혹한 인간세상의 단면을 찾아볼 수가 있다. 디즈니의 뮤지컬 애니메이션은 대부분 명작동화에 기반을 두고 있지만 1940년대까지의 작품들에서는 평범한 동물들을 내세워 인간세상의 모습을 의인화해서 보여주고 있다.

이들 작품들 속에는 영웅적인 것과는 거리가 먼 평범한 주인공들이 등장하고 있는데 모두가 부모부재의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으며 한편으론 특이한 외모 때문에 이용당하거나 부당한 대우를 받는 캐릭터이기도 하다.

〈피노키오(Pinocchio)〉, 〈아기 코끼리 덤보(Dumbo)〉 그리고 〈밤비(Bambi)〉는 모두가 의인화된 주인공들이며 인간 세상의 냉혹한 현실을 상징적으로 잘 묘사해 주고 있다.

물론 이들 애니메이션 모두가 순수하게 아이들을 위한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어지긴 했지만 배금주의나 거짓말 그리고 왕따에 이르기까지 오늘날 사회문제가 되는 이슈들이 이들 애니메이션 속에 녹아있는 것이다.

1950년대 만들어진 애니메이션들은 애니메이션의 황금기라고 부르는 1940년대와는 다른 양상을 보인다. 사회문제들은 사라졌고 요정이야기와 판타지적인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 먼저 1950년과 1959년에 각각 만들어진 〈신데렐라(Cinderella)〉와 〈잠자는 숲속의 공주(Sleeping Beauty)〉는 요정이야기(fairy tale)이다. 요정이야기라고 해서 반드시 요정(fairy)이 나온다거나 요정에 관한 이야기만은 아니다. 단지 놀라울 만한 요소와 사건이 포함되어 있으면 요정에 관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다. 〈신데렐라〉는 월트 디즈니사가 가장 어려운 시기에 만든 장편애니메이션이었다. 1938년에 만들어진 〈백설공주와 일곱 난장이〉 이후 디즈니의 애니메이션은 박스 오피스에서 그다지 빅 히트를 기록하지 못했다. 재정난이 가중된 상황에서 〈신데렐라〉 제작은 일종의 모험이었다. 당시 3백만 달러를 들여 만든 이 작품이 실패한다면 디즈니 스튜디오는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그런데 그 결과는 마치 1927년 뮤지컬 〈재즈 싱어(Jazz Singer)〉가 워너브라더스(Warner Bros.) 영화사를 사활의 기로에서 살린 것처럼 〈신데렐라〉도 박스오피스의 대히트를 기록하며 디즈니 영화사가 21세기 까지 지속시킬 수 있도록 만들어주었다. 2002년에는 〈신데렐라〉의 해피엔딩 이후를 궁금해 하는 사람들을 위해 〈신데렐라II〉가 만들어지기도 했다. 물론 신데렐라가 왕자와 결혼하여 궁궐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초점을 맞춘 것이었다.

1951년에 개봉된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Alice in Wonderland)〉는 유명한 장편동화를 바탕으로 한 애니메이션인데 원작에 대한 훼손이 심하다는 평가와 함께 관객의 미온적인 반응과 평단의 혹평으로 박스오피스에서 대실패를 기록했다.

이후 만들어진 〈피터 팬(Peter Pan, 1953)〉은 현재까지도 많은 어린이들과 어른들이 함께 즐겨보는 애니메이션으로 디즈니의 명작들 중 하나로 손꼽히는 작품이다. 오늘날 무대 뮤지컬로도 자주 공연되기도 하며 극영화로도 여러 번 제작되어 그 인기를 실감할 수 있다. 〈피터 팬〉은 1940년대 초에 〈밤비〉 다음으로 만들 예정이었지만 전쟁으로 인해 제작은 연기되었고 1953년에 만들어졌을 때는 초기 오리지널 캐릭터와는 다른 인물들이 만들어졌다. 아이들의 강아지 나나(NaNa)도 오리지널 아이디어에서는 함께 네버랜드로 가지만 1953년에 만들어졌을 땐 날아가는 아이들을 밖에서 줄에 묶인 채 바라보기만 한다. 엔딩도 오리지널보다 훨씬 따뜻하게 만들어졌다.

〈레이디와 트램프(The Lady and the Tramp, 1955)〉는 디즈니의 15번째 장편 애니메이션으로 동물이 주인공인 영화다. 1940년대에 〈밤비〉, 〈덤보〉 처럼 동물들이 주인공인 작품들이 있었지만 〈레이디와 트램프〉는 좀 차별화되는 작품이었다. 개에 대한 애정과 함께 개들을 사랑스러운 눈으로 보고 만든 영화다. 애니메이션으로는 최초로 시네마스코프-와이드스크린을 적용했다. 스파게티를 먹다가 서로의 입술이 닿는 장면은 매우 로맨틱한 장면으로 유명한데 개봉 당시에 혹평을 받았지만 수십 년이 지난 오늘날 디즈니의 명작의 하나로 인정받고 있다.

〈잠자는 숲속의 공주〉는 〈백설공주와 일곱 난장이(Snow White and the Seven Dwarfs)〉와 〈신데렐라〉와 같은 종류의 애니메이션으로 역시 요정이야기이며 두 작품들과는 차별화된 비주얼 스타일로 만들 예정이었다고 한다. 35mm 필름과 70mm 필름으로 함께 만들어졌는데 결과는 엄청난 재정적 손실을 가져왔다. 6백만 달러를 투입한 〈잠자는 숲속의 공주〉는 박스오피스에서 제작비의 절반만을 건질 뿐이었다. 그 참패의 이유로는 매우 느린 진행과 함께 인물의 성격구축이 거의 없었다는 평가를 받았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이 애니메이션도 뛰어난 그림과 음악스코어 그리고 와이드 스크린 제작이라는 현대적인 감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오늘날 재평가 되면서 디즈니의 명작중의 하나로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결국 1950년대 디즈니의 애니메이션은 1930년대와 1940년대에 이룩한 애니메이션의 흐름을 그대로 답습한 작품들이 대부분이었지만 매우 혁신적인 방법으로 제작되어 당시보다는 오히려 오늘날에 더욱 인기를 얻으면서 재평가되고 있다.

윤우영
(대진대 교수, 연출가)

예/술/칼/럼

생각을 디자인 하자

가을이 한창이다. 산이나 들녘이나 창고에 거두어들이는 저장의 계절이다. 온갖 결실은 유통과 상업성에 견주어 저울추가 무겁다. 낙엽에 편지를 쓰며 날카롭도록 예민했던 젊음의 시간에서 낭만의 꽃물이 떨어진다. 지는 것은 곧 피우기 위한 새로운 약속이다. 거리에는 예술제의 이러저런 풍성한 문자들이 바람과 춤을 춘다. 가을걷이와 예술걷이가 분주하다. 산책과 사색의 계절임에 틀림이 없다.

그러면 무엇을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가. 행여나 이 풍요로운 계절에 관현악과 협주하거나 아니면 관객이 되지 못하고 세상의 허무한 욕망과 욕심에 발목이 잡힌 처량한 부류들이 있다면 그것은 불행한 꼴이다. 그러한 사람들이 가장 먼저 반성하고 깨달아야만 한다.

인간이란 사람간의 관계가 아닌가. 그러므로 참된 인간은 충돌과 다툼의 그물망에 갇히거나 '카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 부정이 아닌 애써 세상을 긍정으로 바라보아야 한다. 그러면 하늘 아래 사랑해야 할 위대한 가치의 종소리를 비로소 들을 수 있게 된다. 대개 사람의 권위주의적 사고와 오만한 태도는 끝내 열등의식으로 추락하고 만다. 추락하는 지점은 허우적 대야할 수렁임에 틀림없다. 빈 깡통은 소리마저 나지 않는다. 빈 깡통에 돌멩이 하나가 들어가야 소리를 내게 된다. 더구나 지성인이라 자칭하는 예술단체나 모임에서 삼삼오오 안으로 굽는 팔뚝끼리 협작질하는 것은 협동사회 정신의 중대한 반칙이며 결국에는 그 구성원의 이지적(異志的) 암 덩이가 된다. 소통과 화해의 시대에 지향할 바가 결코 아니다. 그러한 것은 운동의 표현도 아니요, 개혁의 몸짓도 아니며 변태적 심리현상이 투합하는 것이다. 이러함 역시 이 가을에 사색해도 좋을 또 하나의 숙제다. 늘 여럿이거나 혼자이거나 헛된 욕망을 고요히 비우고 마음에 양식을 땀으로 추수할 때 예술작품은 졸작이 안 되고 또한 인품도 명품이 되는 것이다.

스페인의 건축가 가우디는 사람의 인체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다고 했다. 사람의 뚱은 작물의 밑거름이 된다. 그러나 인간쓰레기는 사회적 악이며 공해에 불과하다. 자신의 시간표에 세상을 담으려 하지말고 세상의 시간표에 자신을 담고자 해야만 한다.

자신의 이름을 세상에 알리고 싶거든 작은 목도장 하나 새기어 자신의 일기장에 찍어 보라. 서럽도록 그 이름이 자랑스럽지 않던가! 으리으리한 집에 문패를 달고 싶거든 자신의 가슴에 당당히 이름표를 먼저 달 줄 알아야 한다. 그 다음에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아야 한다. 위선의 탈을 벗고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말이다. 자신의 무릎이 헤어져 구멍이 날 때까지 사람은 인간의 부루나가 되어야 한다. 누구의 탓을 말하기 이전에 자신의 앞단추 먼저 잘 끼워야 할 일이다. 그리고 아름다운 생각을 디자인해야 한다. 그래서 창조적 인간이 가장 아름다운 인간이다. 아니 예술인이다. 그것이 인간의 무대에 화목한 축제인 것이다. 가을이 저만큼 가기 전에 우리 모두가 생각을 디자인하자. 봄은 멀지 않았다.

안익수 시인
제3의문학 주간

수필가 김창종의 〈포천 이야기〉 (250)

조득남(趙得南)장군

병자호란 당시, 남한산성에서 전사한 조득남 장군을 만나 보기로 하자.

본관은 한양이며 화현면 운악산 아래에서 성장했다. 경기오악(京畿五岳, 북악, 관악, 송악, 감악, 운악)의 하나인 신령한 운악산(雲岳山) 아래에서 성장한 조득남 장군은 운악산의 기를 받은 충신이며 살신성인(殺身成仁)의 용기있는 무신(武臣)이었다.

내 고향 포천 출신의 삼충신(三忠臣)의 한분이다. (포천의 삼충신→유응부, 권종, 조득남) 충신의 칭호를 받고 충신각을 하사받고 홍살문을 세운 가문은 조선조 최고의 영광이었으며 대대로 음사(陰仕)로 임금의 은전(恩典)을 입었으며 충신각이 있는 마을은 다른 마을 사람들에게 존경어린 눈으로 존대받는 영광을 누리기도 하였다. 일찍이 무과에 급제한 조득남 장군은 만호(萬戶)의 벼슬을 하였다.

선조 27년(1594년) 운악산 밑에서 성장한 조득남님은 인조조 정묘호란이 일어나자 임금을 강화까지 호종한 충신이었다. 인조8년(1630년) 유흥치의 난과 가도의 난에 추정하여 혁혁한 공을 세웠다. 1636년(인조14년) 병자호란이 발발하자 인조임금을 호종하여 남한산성에 들어가서 큰 공을 세웠다.

당시, 수어사인 이시백(李時白) 장군의 관하에 자원출정(自願出征)하여 남한산성 북문 밖에서 격전을 전개하여 적 호병(胡兵)을 다수 살해하는 전과를 올렸다. 그래서 인조 임금께서는 조득남님에게 술을 하사하고 또 공조정랑의 벼슬을 내렸다.

그런데 다음 날 다시 출전하여 전투를 벌리다가 격전 끝에 끝내 전사했다. 인조 임금께서는 슬퍼하여 수포(袖布)를 하사하여 시체를 싸게 하고 북문 밖에 임시로 가 매장했다. 병자호란이 끝나자 화현면 화성리 고향으로 옮겨 장사를 지냈다.

현종 6년(1664년) 조정의 신하들이 조득남 장군의 용기와 나라사랑의 정신 그리고, 산신성인(殺身成仁)의 충성심을 높이 평가하여 상소한 끝에 충신각(忠臣閣)을 세원 표창하도록 임금께서 명했다.

내 고향 포천출신으로 조득남님 같은 훌륭한 충신이 있었다는 사실은 큰 영광이며 자랑이 아닐 수 없다. 포천의 문화인들은 조득남 장군을 위한 기념사업이나 전공을 기리는 문화사업에 큰 힘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초대 漢詩

追慕梅竹軒先生(三問)忠節(추모매죽헌선생충절)

松園 李曉種
포천한시사 대표

成公節操卓於天(성공절조탁어천) 後學羹牆幾百年(후학갱장기백년)
성공의 절조가 하늘에 우뚝하니, 후학들이 경모하고 추모하기 몇백년이 되었나.

就死成仁千古範(취사성인천고범) 捨生取義萬秋賢(사생취의만추현)
취사성인 하신것은 천고의 모범이요, 사생취의 하신것은 만세의 어짐이로다.

愛君勁志乾坤定(애군경지건곤정) 報國丹心日月縣(보국단심일월현)
임금을 위하고 공경하신 경지는 건곤과 같고, 보국단심은 日月에 달려있도다.

懿蹟輝煌垂竹帛(의적휘황수죽백) 流芳萬世偉名傳(유방만세위명전)
의적이 휘황하여 죽백에 드리우니, 만년토록 아름다운 향기 흘러 위명을 전하리라.